

II. 産業 診斷

1. 主要 産業 動向

□ 주요 산업 동향

- 경기 하강 지속으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판촉 활동 강화(자동차), 신제품 수출 시장 형성(반도체), 관련 산업 호조(철강) 등으로 다소 회복됨에 따라 8월중 산업경기는 부분적으로는 회복 추세를 보임

□ 9월 전망

- 내수가 성수기를 앞두고 다소간 회복되고, 주요 수출선의 수입수요 증대(석유화학, 반도체), 환율 변동에 따른 경쟁력 확보(조선) 등으로 수출 회복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9월중 산업경기는 비교적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 동향

(1) 석유화학

○ 동향

- 8월중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은 크게 증가하였고, 계절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내수와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음

○ 전망

- 9월에도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내수와 수출은 뚜렷한 회복 양상을 보일 것임. 그러나 생산 및 수출은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의 감소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철강

○ 동향

- 철강 내수는 경기 부진, 수요 업체 부도로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8월 들어 다소 회복, 수출은 해외 철강 경기의 호조로 증가세 지속

○ 전망

- 9월 철강재 내수는 건설 경기 회복에 힘입어 침체에서 다소 벗어남.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나 동남아 시장 불안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

(3) 반도체

○ 동향

- 8월에는 64M DRAM 반도체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액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망

- 9월에는 연말에 집중되는 PC 수요 증가에 대비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4) 자동차

○ 동향

- 8월중 자동차 내수는 '신할부 제도' 도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출은 기아 사태로 인한 은행의 수출환 어음 할인 거부로 전월에 비해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음

○ 전망

- 9월중 자동차 내수는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수요 여력 감소 등으로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도 L/C 내도액 감소와 기아 사태의 파급 효과로 전월에 이어 부진할 전망이다

(5) 조선

○ 동향

- 8월중 수주는 우리 조선 업체들의 선별 수주와 발주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4.2%나 급감하였고, 생산은 선박 납기의 도래로 증가세 지속

○ 전망

- 9월중 수주는 물량 면에서 상반기 수준보다는 작겠지만 96년 9월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생산은 하반기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는 물량이 많고,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6) 국내 건설

○ 동향

- 8월은 공공 물량의 급격한 축소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민간 건축의 수주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에 그침

○ 전망

- 9월의 건설 수주는 공공부문은 부진한 반면, 민간 부문에서 주택 부문과 SOC 민자 유치 부문 수주로 높은 증가세 전망

(1) 석유화학

■ 동향

성수기를 앞두고 내수와 수출이 소폭 회복

- 8월중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은 증대된 생산 여력을 토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내수와 수출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음
 - 8월중의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은 PE, PP 등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한 설비 신·증설로 인한 생산 여력의 증대로 지난 7월중의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에 이어 크게 증가되었음
 - 국내 판매는 대기업의 부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체들의 부도, 혹은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화섬 분야에서의 수요 호조와 성수기를 앞둔 물량 확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된 7월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음
 - 7월중에 계절적 비수기로 전월 대비 0.7% 증가에 그쳤던 수출도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LDPE, PE 등 합성 수지 제품을 중심으로 서서히 살아나면서 다소간의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음

■ 9월 전망

내수와 수출의 회복 지속 전망

- 9월은 계절적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접어들게 되는 시점에서 내수와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은 조업 일수의 감소로 인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9월중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은 생산 여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의 감소로 인해 전월에 비해 신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판매는 성수기에 접어든 수요 업체들의 구매 및 비축 물량 확대 등으로 다소간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내 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추석 연휴로 수요 유관 업체들의 생산 일수 단축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로 회복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비교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합섬 원료와 함께 중국 시장에서 합성 수지의 본격 수요가 도래하면서 비교적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조업 일수의 감소에 따

큰 생산 둔화로 수출 증가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1997년 7월 석유화학 산업 동향>

(단위 : 천 톤)

			7월		1-7월 누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년동기비
생	산	1,090	11.7%	28.3%	6,776	19.3%
출하	소 계	1,036	7.3%	7.3%	6,762	20.5%
	수 출	388	0.7%	0.7%	2,490	29.4%
	국내판매	648	10.0%	20.6%	4,272	15.9%

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주: 3대 유도품 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박 송 동)

(2) 철강

■ 동향

○ 8월중 조강류 내수는 건설 공사 재개로 수요 증가, 판매류는 기아 사태 여파로 경색 지속

조강류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는 지속

- 철근은 업체 보수공사로 생산이 감소하여 재고가 8월초 27만톤으로 감소, 재고 비축에 따른 가수요 증가 예상. 형강은 지연된 공사 개시로 수요 증가
- 열연강판은 포항 1열연 조업 재개에 따른 생산 증가와 수입 확대로 수급 상황 개선, 후판은 SOC투자 집중으로 건설용 수요 증가. 강관은 장마, 휴가 마무리로 토목 공사가 시작되어 파일용 수요 증가. 냉연제품은 기아 사태 영향 따른 연쇄 부도, 자금 경색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 예상

■ 9월 전망

○ 9월 철강재 내수는 전반적인 호조, 수출도 해외 시황 호조로 증가세

- 철근은 성수기를 맞아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수급난이 예상됨. 고철가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계획으로 가수요

건설 성수기를 맞아 수요 회복세, 판재류는 수출로 수급 균형

증가. 형강의 경우 공공 토목 공사 확대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
열연강판은 한보의 생산 안정과 광양 미니밀 정상화로 수급이 다소 안정을 찾고, 후판은 대형 토목 사업 개시와 조선용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가중될 것임. 냉연제품은 내수 부진 지속, 동남아 시장 환율 불안으로 수출 먹구름

<1997년 7월 철강산업 동향>

(단위: 1,000 톤, %)

		7 월				1~7월 누계			
				증가율(전월비)				증가율(전년비)	
H형강	판매	204		3.8		1,466		27.9	
철근	판매	899		1.0		6,584		15.9	
열연강판	내수	512	208	7.0	4.6	4,526	1,510	1.3	5.5
	수출								
후판	내수	291	35	12.4	12.5	1,866	277	-2.2	0.3
	수출								
강판	내수	216	60	8.9	-13.2	1,424	438	13.8	20.6
	수출								
냉연강판	내수	288	208	-4.3	20.4	2,087	1,438	0.2	23.1
	수출								

자료: 한국철강신문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박 병 질)

(3) 반도체

■ 동향

수출이 점차 증가세 시현

- 8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3.9%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5월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점차 신장세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신장세는 16M DRAM의 가격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고 64M DRAM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 8월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6.9% 증가해 매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 나라 반도체 수입의 대부분은 전자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비메모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아직 우리 나라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64M DRAM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출에 긍정적 요

64M DRAM
의 수출 증
가 추세

인으로 작용함

- 현재 64M DRAM은 삼성전자와 일본의 NEC가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64M DRAM은 1월에 6천 3백만 달러 수출 이후 계속 증가해 7월에는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9월 전망

연말 PC 수
요에 대비한
반도체 수요
증가 예상

- 9월에 들어도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연말 PC 수요에 대비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PC의 핵심 장치인 CPU(중앙처리장치)의 경쟁 심화로 가격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PC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1997년 7월 반도체 산업 동향>

		7월		1~7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수출	억 달러	14.96	36.6	96.28	0.5
수입	억 달러	97.97	10.7	71.50	22.6
생산	억 원	10,344.41	20.0	61,938.14	9.0
내수	억 원	352.32	17.1	2,489.71	33.9

자료: 수출, 수입은 통상산업부, 생산 및 내수는 통계청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신 광 철)

(4) 자동차

■ 동향

8월 국내 자동
차 내수는 '신
할부제도' 도
입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 8월중 국내 자동차 내수는 2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은 전월에 비해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4.9%의 증가율에 그쳤음
- 생산은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내수 증가율에 따라 전년 동월에 비해 5.4%의 증가율을 기록했음
- 차값의 최고 55%를 납입 유예하는 '신할부 제도'의 도입으로 내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3% 증가하였음
- 수출은 은행의 수출환어음(D/A) 할인 거부로 인해 기아자동

- 차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 동월에 비해 4.9% 증가에 그쳤음
- 수입차 판매는 수입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1%가 감소한 662대에 그쳤음

■ 9월 전망

9월중 수출은 기아 사태 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로 전월에 이어 부진할 전망

- 9월중 자동차 수출은 전월에 이어 부진할 전망이다
 - 생산은 내수 및 수출 둔화 예상, 추석 연휴에 따른 생산 감소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
 - 내수는 국내 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년 7,8월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수요 여력 감소 등으로 전월에 비해 부진할 전망이다
 - 8월중 자동차 및 부속품의 L/C 내도액이 29.4%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금융권의 기아그룹의 수출환어음(DA) 및 수출 LC 매입 거부 등으로 수출이 전월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보임
 - 수입차 내수 판매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997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

(단위 : 대)

	8월		1~8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생 산	233,332	5.4	1,866,595	2.0
내 수	152,868	25.3	1,039,928	6.8
수 출	90,693	4.9	834,371	15.2
수입차 판매	662	-33.1	6,049	-14.5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단, 8월 통계치는 잠정치임
 주: 수출에서 KD는 제외,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운 창 호)

(5) 조선

■ 동향

- 8월중 수주는 감소세로 반전, 생산은 증가세 유지
 - 8월의 신조선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3.2% 감소한 26.3만 GT

선별 수주로
수주는 감소
세로 반전,
생산은 증가
세 지속

로 나타남
· 우리 조선 업체들이 적정 조업 물량(2년치)을 확보함으로써 채
산성있는 선박을 수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지속된 탱커의 발주 증가세가 이번 달
들어 주춤해지고 있는데도 기인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한 61.8만 GT임
· 선박 납기의 도래로 건조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올해 8월까지 수주는 증가세 지속, 생산은 감소세
전체 수주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2.0% 증가하였음
· 선종별로 보면 VLCC를 포함한 탱커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벌크캐리어가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은 감소폭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됨

■ 9월 전망

수주가 증가
세로 반전, 선
박 납기 도래
로 생산 증가
세는 확대 전
망

- 9월중 수주는 증가세로 반전,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지난해 9월의 수주 물량이 작아서 지표상으로는 증가할 전망
· 7월까지의 수주 증가세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매우 작아질 것
으로 예상됨
· 그러나 수익성 면에서는 선별 수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개선
될 전망임
· 연례적으로 볼 때 선박 납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더불어 수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997년 8월 조선 산업 동향>

		8월		1~8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수주	만 GT	26.3	53.2	676.3	152.0
생산	만 GT	61.8	21.0	440.5	9.7

자료: 조선공업협회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정 회 식)

(6) 國內 建設

■ 동향

8월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민간 건축 축소로 부진

- 8월중 건설 수주는 공공 물량의 급격한 축소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민간 건축의 수주 둔화로 전년 동기대비 3% 증가에 그침
 - 공공 부문은 건축에서 학교 시설, 공용 시설 등의 발주, 토목은 지방 쓰레기 소각장 발주가 예상되나 대형 공사 발주가 상반기 중에 끝나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함
 - 민간 부문은 토목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 증대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건축 부문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4.7% 증가에 그침

■ 9월 전망

9월은 공공 부문은 부진 지속, 민간 부문 다소 활력을 찾을 듯

- 9월중 건설 수주는 공공은 부진한 반면 민간 부문에서 주택 부문과 SOC 민자 유치 부문 수주로 크게 증가할 전망
 - 공공 물량은 상반기 물량 소진에 따른 부진이 지속돼 업체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민간 부문은 광역시 등 지방 도시 지역의 주택 부문 호조가 예상되고 SOC 민자 유치 부문의 계약 증가 예상

<1997년 8월 국내 건설 수주 동향>

(단위: 조 원)

수주	8월		1-8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합계	6.90	3.0	55.06	31.8
공공	2.45	0.4	21.45	25.4
민간	4.45	4.7	33.63	32.9

주: 8월은 대한건설협회 추정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김 선 덕)